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요한계시록 17:1~6, 14; 18:1~18. 세상의 악인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멸망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에 가담하지도 않게 될 것이며, 세상을 멸망시키는 재앙에 덮이지도 않게 될 것이다.(25~30분)

학생들에게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의 1절 가사를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찬송가에서 바벨론이 누구 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그것이 시온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은 무너지는가?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 요한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았음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게 하고 이 구절에서 요한이 본 여자를 묘사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여자는 짐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읽는다. 이 여자와 짐승과의 관계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여자가 지닌 관계와 어떻게 다른가?

이 악한 여자를 둘러싼 비유와 상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대한 주해(469쪽)를 학생들에게 읽어준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에 대해 영감에 찬 주해를 주셨다고 설명한다. 니파이는 비슷한 시현을 보고 그가 본 것을 기록했다. 학생들에게 **요한 계시록 17장 5~6절과 니파이전서 14장 9~12절을** 읽고 상호 참조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니파이는 두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
- 여러분은 이 두 교회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지상의 온 땅 위에서)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니파이전서 14장 13~17절을** 읽고 이를 상호참조하게 하고 나서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악마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해 싸우는 것)
- 악마의 교회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어린 양의 권능)
-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권능으로 무장할 것인가? (의로움)
- 악마의 교회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

학생들에게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에 사는 것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해 준다. 한 학생에게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칼로스 이 애시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후기 성도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악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잘 조화된 사람'이란 너무 의롭게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한쪽 발을 바벨론에 얹고 다른 쪽 발은 시온에 놓은 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성공적이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야고보서 1:8 참조)"(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59쪽;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41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한 발을 바벨론(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시온(교회)에 두는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것의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양쪽에 한 발씩 두는 것이 왜 어려운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세상의 행로 사이의 간격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배도해 떨어져 나가 성약을 깨뜨리고, 구속의 계획을 자신의 규칙과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4월, 26쪽;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21쪽)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것인가?
-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천사가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죄와 그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18장 5~8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주님께서 바벨론과 그 죄에 가담하는 이들에게 어떤 보상을 내리실 것인가?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애시 장로가 던진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을 명심하게 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의로워질 수 있으며, 지나치게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위 '잘 조화된 사람'이 선과 악의 들보 사이를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걸음마다 흔들리고 불안정하며 결국에는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넘어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4월, 59쪽;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41쪽)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사악한 자들의 반응이 의로운 이들의 반응과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 18:11~18, 20 참조)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재물을 공급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해 바벨론을 잃어버려 애통해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21편 34~35절이** 어떻게 이 교훈과 관계가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 구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기" 위해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종이에 적게 한다. 여러분은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의 3절을 노래하거나 그 가사를 읽음으로써 결론을 맺을 수 있다.